

# 철저한 안전의 생활화, 노사화합으로 무재해 10배 달성

「한국전력공사 청양전력소」



▲ 박 창 우 소장

## 철갑산의 푸른 생명앞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

충청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차령산맥이 비스듬이 뺨어내려 우리의 옛 추억을 간직한 철갑산과 수려한 산과 계곡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청양에는 「한국전력공사 청양전력소」가 있다. 하루 24시간 컴퓨터와 일을 하고 생활공간을 비춰주며 우리의 편의 시설을 돕는, 없어서는 안될 전기를 공급해주는 곳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발전한 전기를 수송·변환하는 송변전, 수송·변환한 전기를 가정이나 학교, 기업 등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배전업무 중 송변전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설비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양전력소는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산과 들로 전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또한, 2개 발전소의 변전소와 청양, 대천 등 9개 변전소를 관할하여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보령과 서천화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부분 수도권으로 안정되게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고, 듣기만 해도 섬뜩할 정도인 이곳 전력소에서 무재해 10배를 달성했다는 것은 경이적이라는 표현이 적격이다.

안전점검 및 가상사고 모의훈련 등 안전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안전우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경영진 참여, 범국가적 안전관리행사 시행, 노사합동 안전관리 및 지도 점검 등 의식제고를 위한 안전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안전진단 및



사고조사를 통한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하지는 경영방침이 안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 ■ 안전은 생활의 일부

안전은 생활의 일부분임을 강조하는 박창우 소장은 평소 ‘설마 나에게 사고가 일어날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다고 한다. 나에게, 혹은 나의 동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평소에 안전을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전력공사 청양전력소는 안전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며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 철저한 점검·관리, 노사화합으로 이룩한 무재해 10배

청양전력소는 특별고압을 취급하는 공정 특성상 유도전압으로 인한 감전 및 추락의 위험과 사선과 활선의 착각에 의한 감전 등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가 매우 많



다. 이에 안전관리시스템 (SSM : Systematic Safety Management)을 운영하여 위험성 체크리스트, 설비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점검지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여 설비의 무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전력공사 청양전력소는 인간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한 ‘무재해 10배 달성’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수확하였다. 무재해란 단순히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직장내 일체의 잠재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그 뿌리에서부터 산

업재해를 없애는 것이다. 이에 경영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 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치·협력하고 원만한 기업풍토 조성으로 진정한 노사화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을 제 2의 가정으로 여기고 평생 직장으로, 주인 의식으로 타 전력소에서는 한번도 달성한 적 없는 무재해 15배를 목표로 매진할 것이라고



박창우 소장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 ■ 직원 복지에도 한걸음

평소 청양전력소는 직원을 배려해주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다. 회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건강상담과 체크를 매일 실시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 밖에 정신건강을 위한 등산산악회, 낚시회, 비독회 등 건전한 여가활동 및 서클활동 등은 청양전력소를 하나로 묶기에 충분하고, 그 단결력은 무재해 10배로도 나타났다.

또한, 외부 인사 초빙이나 현장 위주의 교육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직원들의 안전 지식 및 의식 함양과 함께 자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안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이곳 청양전력소에서는 가정에서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시행한다. 그 중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화재시 소방훈련을 관찰 소방소대원들과 함께 하는 것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박창우 소장이 늘 이야기하는 '명량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청양전력소 업무 특성상 힘들고, 위험함에도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의지하며 밝게 일하는 이곳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안전활동을 보는 듯하다.

아마 한국전력공사 청양전력소는 타 전력소에서 이룩하지 못한 무재해 15배 달성의 열매를 반드시 수확할 것이다.  (성호연 기자)

